

LED전광판

기술 가이드

2026-10-05 · (주)연우솔루션 작성 · 사진 10장

관공서 대회의실, LED와 멀티비전 사이

월요일 오전 10시, 시청 4층 대회의실. 간부회의가 시작되자 정면 프로젝터 스크린 아래로 AI 실시간 자막이 흘러간다. 창가 끝자리 과장은 자막을 읽으려다 포기하고 노트북을 다시 연다.



회의 한 번에 벽에 올라가는 네 개의 창

표 자료

원본 크기 이상, 표 앞의 숫자가 읽힐 것

실시간 자막

창 2줄 띄, 끝자리 기준 글자 높이

원격 참석자

최대 9분할, 얼굴이 패널 경계에 걸리지

안전 요약 메모

우측 세로 띠, 회의 중 자동 갱신



원문 수록 이미지 ·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01 멀티비전과 LED는 이름매와 거리에서 갈린다
- 02 가장 먼 자리에서 자막 한 줄이 읽혀야 한다
- 03 견적은 화면값보다 벽과 배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갈린다
- 04 실측부터 첫 회의까지, 회기 사이에 끝낸다

본문 속 수치

10년

회의 방식은 바뀌었는데, 벽에 걸린 화면은 10년 전 그대로다.

2.0m

같은 3.6×2.0m 벽이라도 두 화면은 성격이 다르다.

55인치

55인치 패널 9장을 3×3으로 짰 멀티비전은 해상도가 5760×3240이다.

0.88mm

대신 패널 사이에 베젤 이름매가 남는다. 초슬림형도 합쳐서 0.88mm 안팎, 일반형은 3.5m...

화상으로 들어온 음·면장 여섯 명의 얼굴은 발표 자료에 밀려 손톱만 하게 줄어 있다.

회의 방식은 바뀌었는데, 벽에 걸린 화면은 10년 전 그대로다.

AI 회의실의 화면은 이제 네 개의 창을 함께 띄운다

예전 대회의실 화면이 할 일은 하나였다.

발표 자료 한 장을 크게 보여 주면 됐다.

발표 자료, 화상회의로 들어온 원격 참석자, AI가 받아 적는 실시간 자막, 안전별 요약 메모까지.

네 개의 창이 한 벽에 동시에 올라간다.

적용 디스플레이

실내 LED 전광판 · 멀티비전·비디오월 · DID·사이니지 모니터 · 빔프로젝터

구성 요소

원격 관제·제어 · 콘텐츠 제작 · 맞춤 프로그램 개발 · 3D 모델링·설계 · AI·인터랙티브

진행 단계

현장 실측 → 구성 제안·설계 → 제작·발주 → 설치·시공 → 시운전·인수 교육 → 운영·유지보수

관련 솔루션

비디오월 어긋남

기업 사옥 · 내부망

N2SF 전환 · 보안 DID

공공 청사 · 지자체

이 가이드로 상담

☎ 010-2700-2648 · ✉ osskoreaing@gmail.com

원문 · 사진 전체: screenmaru.co.kr/blog/224431973941.html



연우솔루션
YEONWOO SOLUTION

기술 가이드 973941